

### 요한복음 3장 22-30절 말씀

- 22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 
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
- 23 요한도 살렘 가까운 애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 
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
- 24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
- 25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 
정결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
- 26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 
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 강 저편에 있던 이  
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때  
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

#### <그는 vs 나는>①

- 27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 
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 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
- 28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 
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

#### <그는 vs 나는>②

- 29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 
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 
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

#### <그는 vs 나는>③

- 30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 
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

### <대화 A-1-㉞ 대화에 대한 저자의 결론적 선언>

### 요한복음 3장 31-36절 말씀

- 31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 
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
-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
- 32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 
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
- 33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
- 34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 
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
- 35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
- 36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 
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 
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